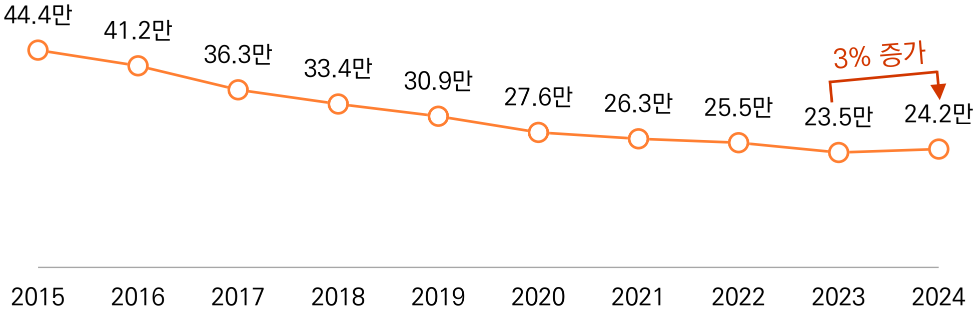
[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(출산율 등)]
한국의 출생아 수, 9년 만에 반등!

-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국가·사회적인 큰 고민거리이다. 조금은 위안이 될만한 행정안전부의 국가통계 결과(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 결과)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.
-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44만 4천 명 이후 8년간 감소하기만 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(2024년) 24만 2천 명으로 2023년보다 7천 명가량(3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'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저출생 대책을 쏟아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'이며, '아이를 낳으면 손해'*라는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.

[그림] 출생아 수 추이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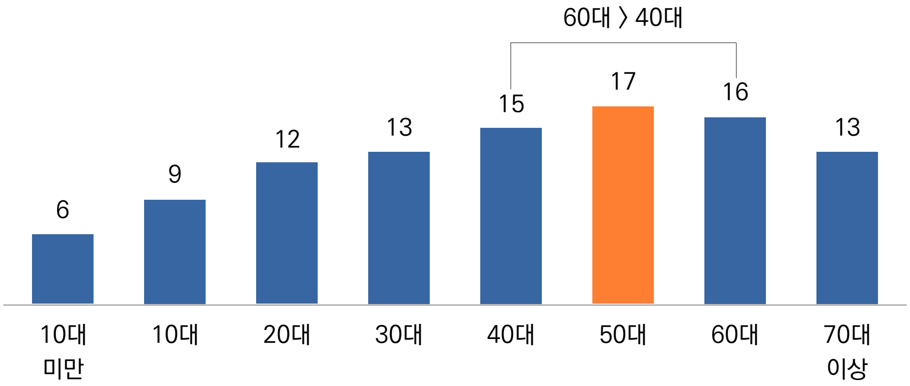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2024년 출생(등록)자 수 24만 명, 9년 만에 증가, 2025.01.03.
* 조선일보, MZ인식 바뀌자, 9년 만에 출생아 수 늘었다, 2025.01.06.(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5/01/04/OV7TYZMFXNBGDHNSC34AWXUKUU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)

60대 인구, 4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러!

- 연령대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1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60대(16%), 40대(15%) 등의 순이었다.
-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, 70대 이상 인구가 30대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결과라 주목된다.

[그림]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* (%)



※출처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2024년 출생(등록)자 수 24만 명, 9년 만에 증가, 2025.01.03.
*30대(12.93%), 70대 이상(12.94%)가 본 수치임